

●연중 제 18주일 강론

아주 큰 부자가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앞장서서 천국을 안내하고 부자가 살게 될 집을 찾아갑시다.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며 부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천국은 다르군. 아~, 여기서 살게 되다니 정말 좋구나.’ 그런데 천사는 으리으리한 저택들을 계속 지나쳐 가기만 하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부자는 더 좋은 집을 기대하며 천사를 따라갔지요. 천사와 부자는 다음 마을로 들어섰는데 이 마을에는 165㎡(약 50평), 330㎡(약 100평)가 넘는 최고급 아파트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여기도 살만은 하겠군.’ 부자는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집을 찾고 있는데 이번에도 천사는 그 마을을 휩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보니 저만큼 달동네가 나왔습니다. ‘설마 저 곳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가는 부자에게 천사는 달동네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세워진 어느 쓰러져가는 판잣집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당신이 살 집입니다.”

화가 치민 부자가 따졌습니다. “무슨 소리이십니까? 저는 지상에서 살 때에도 호화주택에서 땡땡거리며 살았는데, 아니 천국에 와서 이렇게 다 쓰러져 가는 판잣집에서 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자 천사가 안타깝다는 듯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당신이 지상에 살면서 보내준 건축 자재로 지은 집이 바로 이 집이니까요.”

우리 모두는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끼고 모아서 자식을 교육시키고 저축을 하는가 하면 남은 인생을 위해서 보험까

지도 들지요. 더군다나 요세는 80, 90살이 예상로 느껴질 만큼 수명이 늘어나 노후대책을 위한 국가 차원의 해결책을 요구하기까지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끔 세상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노라면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해 놓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에 더 큰 희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신자 여러분들은 정작 하늘나라에 얼마나 저축을 해 놓으셨는지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재산이 많은 부자를 야단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루카 12,21)는 말씀처럼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는 넘치게 살면서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인색한 이들에게 나눔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은 축복과 저주의 양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에 형제 사이를 갈라놓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왕래마저 끊게 만드는 사건의 내막에는 대부분 재산 다툼이라는 어두운 면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한평생 고생하며 모아 놓은 재산을 앞에 놓고 부모 형제가 남만도 못한 가슴 아픈 관계로 전략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면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재산을 잘 활용하면 이것처럼 큰 축복도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재산이라도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기쁘게 사용하면 하느님께는 감사와 찬미의 영광을 드릴 수 있고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없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소유하는 순간부터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영이 없는 재물은 이웃을 피눈볼 나게 만들

수 있고, 사방에 죽음의 문화를 꽃피우기도 합니다. 또한 영원한 세상을 믿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관심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재물의 유혹이고 악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오늘 독서는 “허무로다, 허무! 코헬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코헬 1,2)고 말씀하시고, 바오로 사도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콜로 3,1-2)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재산 분배에 대한 불평으로 괴로워하며 가르침을 청한 청년에게 지나치게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의 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당부이지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히 잃지 않을 재물, 진정한 재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느님과 이웃입니다.

이기양 신부(오금동본당 주임)

작은 천국(天國)

가정은 누구나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최종적 조화의 상태입니다. 가정을 부디 당신의 본업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가정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最大)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천국에 가장 가까운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가정을 천국과 닮게 하십시오.

●공소일반공지●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바느질대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 없이도 살아갈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리러 뵈을수록 전혀 알 길 없습기에
체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 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찬된 진리 없나이다.
-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올리나이다.
-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보지는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 않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 사랑 깊은 켈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 내시리이다.
-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으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제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뵈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 ◎ 아멘.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울뜨레아 야유회
오늘 회합은 없으며 다음 주 (12일) 미사 후
야유회(Victoria Park. 키치너) 로 대체
합니다.문의: 울뜨레아 간사(김현태 요셉)

●구역 모임(야유회)
2구역 :오늘 미사 후/ Stanly Park(키치너)

●책 주문 받습니다.
신앙생활에 관한 모든 서적을 본당에서 이번에
주문코저 하오니 책이 필요한 교우는 책 제목과
주문자 성명을 적어 빠른 시일 내에
선교부장(박재영 형제)에게 신청 바랍니다.

● 본당 신부님 배 골프대회 연습 게임
8월 13일(월) 대회장소인 South Brook Golf Club
현장에서 연습게임을 가질 예정이오니 희망자는
행사부장(윤명원 요셉형제)에게 접수 바랍니다.

●여성 꾸르실료주말 251차 참가신청접수
▶일 시: 07년 9월 20(오후6시)-23일(오후6시)
▶장 소: Queen of Apostles Renewal Centre
▶참가비: \$280 ▶마 감: 8월 26일
▶신청및 문의 : 김현태(요셉)간사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올해는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됩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이집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서부공소 인터넷 클럽 안내(가입-일괄 접수중)
▶가입방법: 해외거주자인 관계로 굿뉴스 담당자
에게 아이디 3개(중복확인 후 1개 선택함),
비밀번호,실명(한글),현주소, 전화번호,소속본당,
세례명을 메일(goodnews@catholic.or.kr)로
보내시면 즉시 가입을 대신해드립니다. 개별
가입이 원만치 않은 교우 여러분은 기재사항을
서기(한택중 형제)에게 주시면 일괄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성서 공부 의문사항 이메일주소
koandl92@hanmail.net다.

●헌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정성껏 마음을 모아 봉헌합시다.
(8월 12일 : 교무금 / 8/월 26일 : 성전건립)

●매주일 예배하는 성전은 우리가 나눔과 일치의
공동체로 가꾸어 주님의 뜻을 이룩해야 할
거룩한 곳입니다. 항상 깨끗이 사용합시다.

●주간 전례

▶8월 7일(화) 오후 8시, 연중 제 18주간 화요일
▶8월 9일(목) 낮 12시, 연중 제 18주간 목요일
▶8월 9일(목) 오후 8시, 연중 제 18주간 목요일

●이번 주는 성소 후원회 회비 내는 날입니다

●베트남에서 감사편지
베트남에 보낸 성금에 대한 감사의 편지가 왔습
니다. 게시판에 붙여두었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정성이 큰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곳이 있음을
보며 사랑의 나눔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7 본당 신부님 배 골프대회
일시: 2007/8월20일 11: 30 회비: \$70
장소: South Brook Golf Club
본당과 공소의 단합을 위한 행사이므로 많은
분들의 참석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남는 이익금은 본당 친교실 공사 상환금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경품에 사용될 물품과 현금 도네이션
받습니다.(사목회 총무님과 사목회장)

●온타리오 신앙대회
일시 : 9월 13일(목)-15일(토)
장소 : 13일, 14일 (예수성심성당에서 특장)
15일 미들랜드 성지 파견미사 및
김대건신부 부조상 제막식
강사 : 배영진(야고보)신부 ·인도출신
일정: 13-14: 7시 미사, 10시 강의마침
15일 :11시 30분 목주기도
12시미사, 1시30분 부조상 제막식

●7,8월 휴가기간
7월과 8월은 많은 가족들이 휴가를 떠납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
다. 그러나 신앙은 휴가가 없습니다. 휴가를 가
면 당연히 신앙생활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휴가계획들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미사전례

해설 | 박인선 차주해설 김직현

화답송 | 주님 주님께서는 대대로 저희에게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알렐루야

성가

입당 (459) 너희는 가진것 팔아
봉헌 (214) 주께 드리네
성체 (158)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퇴장 (32)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독서	서
8월 5일	이상재	이향숙
8월 12일	고영호	고기숙
8월 19일	김호철	김창숙
8월 26일	신상우	신계연

	봉헌	헌
8월 5일	장명길	장용경
8월 12일	이상재	이향숙
8월 19일	고영호	고기숙
8월 26일	김호철	김창숙

2007년 7월 22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760.07
성전건립:	\$ 20.00
Total:	\$ 780.07

2007-31 2007. 8. 5.

연중 제 18주일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4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2시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 성사	2년에 일회, 1개월 교육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